

# 여수시, 민생 회복·경제 활성화 '총력'

## 1천110억 투입...5개 분야·55개 사업 추진 소상공인 지원·전통시장 활성화·일자리 창출

여수시가 올해 건전 재정 기초 속에 서도 1천110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생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지역 경제 활력 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한다.

'민생경제 지원 시책'은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주거·생활비 지원 등

총 5개 분야에서 55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수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지난해 700억원에서 올해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 할인을 10%를 상시 적용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에서 사용하도록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지난 설에는 상품권 15% 특별 할인을 진행, 5일 만에 배정 물량 완판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참여가 뜨거웠다. 시는 앞선 성공 기세를 몰아 권역별 방문 현장 등록 등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 불황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가에 30여억원을 투입, 여수진남상가와 수산물특화시장 등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는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착한가격업소 105개소에 1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융자금·이자차액 보전 등 경영안정자금 19억원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도모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 앞선 성공 기세를 몰아 권역별 방문 현장 등록 등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우대 지원 대상이 신규로 추가되고 조건에 따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취약계층에 난방비·교육비·문화비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공공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라 난방비 부담을 해소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6천500여 세대에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관내 저소득층 가구 중·고등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료 월 1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면서 교육비 부담을 덜고 활발한 진로 개발에 기여했다.

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누리카드와 회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해 설날 기간에 여수 중앙선에서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여수시 제공>

망바우처는 올해도 지속 추진하며 1만5천 500여명을 대상으로 19억원이 투입된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8억원을 편성해 총 9천600여명을 고용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는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지원, 생계 안정

과 근로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경제 지원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 현장 소통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군 봉래면 썩섬은 썩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섬으로 나로도 연안역선택터미널에서 배로 2분이면 갈 수 있다. 사진은 썩섬 전경. <고흥군 제공>

## "미식 여행지 고흥의 맛보러 떠나요"

### 봄 제철 음식 알 파악 '주꾸미·봄 도다리' 일품

고흥군이 청정바다 내음과 봄 향기가 가득한 '미식 여행지 고흥'으로 초대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연중 따뜻한 날씨와 오염되지 않은 청정바다를 가지고 있어 사계절 풍부한 수산물과 식재료가 생산된다. 특히 3월은 알이 딱 찬 주꾸미와 달큰한 봄 도다리를 맛볼 수 있다.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기 때문에 5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알이 딱 찬 주꾸미를 먹기에 최적기인 셈이다. 도다리 역시 봄에 지방산 함량이 높아 맛이 좋다.

녹동 수협활선어회센터(도양읍 목

넘가는길 19)와 나로도 수협활선어회센터(봉래면 나로도항길 128)를 방문하면 kg당 2만5천원에서 3만원 사이에 주꾸미를 구매할 수 있고 도다리는 kg당 3만원이다.

녹동 수협활선어회센터에서 구입한 주꾸미와 도다리는 2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취향에 따라 주꾸미 샤브샤브, 주꾸미 무침, 도다리회, 도다리 숙국 등으로 맛볼 수 있다.

녹동에서 주꾸미로 허기를 달랠다면 소록도를 방문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소록도가 지난 2월5일 개방을 시작했다.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소록도(小鹿島)는 15만평 수준의 작은 섬이지만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해안 절경, 울창한 송림 그리고 '소록도의 천사 마리아나와 마가렛'의 아름다운 봉사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나로도 연안역선택터미널 주변 음식점에서도 주꾸미와 도다리를 이용한 계절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나로도에서 향긋한 썩 향과 달큰하고 부드러운 도다리살이 어우러진 '도다리 숙국'으로 겨우내 움츠러든 몸에 봄의 활기를 선물해보자.

자연산 주꾸미와 봄 도다리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061-830-5835)으로 연락하면 된다. /고흥=최병환 기자

## '편백숲의 고장' 장성군, 숲 해설 운영

### 11월까지 무료 해설...꽃·나무·곤충 등 '숲속 이야기' 전달

장성군이 오는 11월까지 주요 산을 비롯해 장성호 수변길, 산림욕장, 트레킹길 등 숲이 있는 관광·휴양 명소에 전문 숲해설을 운영한다. <사진>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은 흑령산, 백암산, 불태산 등이 기다란 성처럼 어깨를 맞대며 감싸고 있으며 전체 면적 가운데 절반이 활엽림은 61%가 임야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인공 조림지인 축령산 편백숲은 산림청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가치가 높다.

50-60년생 편백나무, 삼나무 등이 1천150ha 규모로 울창한 상록수 숲을 이루고 총 4개 구간의 등산로가 있으며, 코스 당 1시간30분에서 3시간 가량 걸린다.

장성호 수변길도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다. 호수를 중심으로 좌측이 출렁길, 우측이 숲속길이다. 출렁길은 색다른 매력을 지닌 두 개의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고, 숲속길에선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이 기다린다.

이러한 숲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할



숲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숲 해설가들이 숲속길을 안내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숲 해설' 듣기다.

숲 해설가와 함께 자연을 거닐며 숲에서 만난 꽃과 나무, 곤충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접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숲을 바라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자연 체험의 기회가 되고, 성인에게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치유 여행이 된다.

숲 해설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해설이며, 예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010-9085-4848)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 담양문화원, '어깨동무 동요 부르기' 강좌

### 지역민 문화예술 교육...일상 스트레스 해소 도움

담양문화원은 12일 "문화학교 '어깨동무 동요 부르기 강좌'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사진>

문화학교는 문화의 시대를 살며 갈수록 높아지는 문화적 교양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민 문화 예술 교육으로 생생 국가 유산 ▲의병이 지킨 나라 ▲나무가 지킨 마을 ▲박동실체 판소리 열사가 학당 ▲대나무 난타 교실 ▲민속 국악반 ▲흥의 디딤 ▲한국 무용 ▲신바람 품물 장구 교실 ▲어깨동무 동요 부르기 교실 등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서는 각 과정 별 기초 이론과 실기를 배운다.

어깨동무 동요 부르기 교실에서는 생활, 계절과 관련된 추억의 동요를 함

게 부르며 자기 동요 쓰기 시간도 갖는다.

강좌의 마지막 날에는 추억의 동요 음악회를 개최해 참여자의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강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어

린 시절을 추억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배려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또한 노래 부르는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시니어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학교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학교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접수는 담양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061-383-6066)하면 된다. /담양=정승균 기자



담양문화원 '어깨동무 동요 부르기' 강좌 수강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담양문화원 제공>

## 광양경제청, SNS 서포터즈 모집

### 이달 17일까지 접수...10개월간 활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오는 17일까지 광양경제청과 입주 기업의 소식을 SNS를 통해 홍보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4명으로 여수·순천·광양시 하동군에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1985년~2004년에 출생한 20대 남녀 중 자신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활동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광양경제청의 다양한 행사, 시책, 입주 기업 등을 소개하고 광양만권의 볼거리, 먹거리와 같은 정주 여건을 직접 취재·제작한 콘텐츠를 개인 SNS와 광양경제청 SNS에 게시하며 채택된 콘텐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희망자는 이달 17일까지 광양경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 (withmina7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경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홍보과(061-760-5091)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 광양경제청과 입주기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방향 소통 체계 구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 곡성군, 대학생 '1천원의 아침밥' 지원 전남과학대학생대상...11월까지 운영

곡성군은 12일 "고물가·시간 부족으로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은 대학생에게 전남 쌀을 이용한 아침 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도내 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곡성에서는 전남과학대학교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지원 단가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2배를 늘리고 해당 학교와 전남도, 곡성군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1식에 총 5천500원 상당, 2만명분의 아침 식사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감안해 전남과학대 교내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방학 기간(3월-11월)을 제외한 학기 중에 운영될 방침이다. /백현진 기자



## 섬진강수달생태공원, 미디어파사드 수놓다

### 구례군, 오후 7-9시 3D입체 콘텐츠 영상 상영

구례군은 12일 "섬진강수달생태공원 미디어파사드(사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media)와 건물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상영하는 것을 뜻한다.

군은 섬진강과 수달의 상징적, 예술적 가치를 담아낸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콘텐츠를 연출할 예정이다. 관람객

이 몰입하며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수달의 습성을 살린 개성 있는 3D 캐릭터에 스토리텔링을 더했다.

또한 바닥에 상영되는 콘텐츠는 관람객이 밝은 자리마다 각 요소들이 반응하는 사용자 반응형 체험 기능을 탑재해 밤하늘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수달생태공원 휴원일인 월요일에는 관람이 불가능하다. /구례=임종길 기자